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롬 8:12~17

십자가와 성령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 핵심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앙, 교리, 선교, 성령을 위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신앙교리의 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선교의 책'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는 8장입니다. 이 8장에 나타난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쉬운 말로 다시 요약을 하면 '십자가와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정죄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습니까? 능력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성령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일회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을 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능력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이 때 성령님은 그의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생명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육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육이 이상하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햇빛으로 인해 사라지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육이, 육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사탄의 영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빚진 자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찬송 소리도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선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분출되고 사랑이 분출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능력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됩니다. 육신에 빚진 자가 되면 육의 노예가 됩니다. 육신대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육신에 빚졌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숨어도 안 됩니다. 평생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빚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들은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은 쇠사슬의 길이만큼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쇠사슬에 걸려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뛰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풀린지도 모른 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귀에게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모든 본능에서부터 자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고 믿으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의 본능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육신에 빚져서 살아왔고 죄의 습관대로 살아와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빚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활동을 하도록 주권을 이양하십시오. 그때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육의 모든 행실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이 오면 겁을 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병들어 죽든 자연스럽게 죽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환영하십시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영원을 여는 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는 특권이 있습

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탄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육신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그 위치를 다 상실해 버리고 죄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다 알고 짓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짓습니까? 할 수 없이 짓는 것입니다. 안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빤히 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 본능들이 사라지고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과정 - 이를테면 호적을 옮기는 과정 - 을 성령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소속된 나를 빼 내어서 하나님에게 나를 집어넣는 과정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養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사탄에게 속해있는 나를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왜 닭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예뻐서가 아닙니다. 잡아먹으려고 모이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좋은 것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은 그것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결국에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외로운 것입니다. 허무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인 '양자의 영'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선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많은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양자의 영입니다.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는 로마시대의 법을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네로도 양자였습니다. 그만큼 양자제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양자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권(父勸), 즉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소유와 지배를 전부 의미했습니다. 현대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집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수속을 다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되는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구원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 죄를 지었다고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성된 구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그렇게 흔들거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가까이하기 어렵고 만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격이 없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부끄러움과 실수까지도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응석도 부리고 떼도 쓰고 그러다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붓자식이 아닌 친자식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친히 성령님께서 증거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세 가지 단계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의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만큼 계시지 않다고 하는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증거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구원을 받고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축복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後嗣)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함

께 아파하는 것이 가족이듯이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 된 자입니다.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는데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편하게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다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진짜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난 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누리신문」제공 - http://www.onnurinews.com/